

지역사회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2019.7.3.)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추진 방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실장)

목 차

1. 논의의 주안점	01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양성과 요건	02
3. 지역 현실과 전달체계의 변화방향	06
4. 준비 과제	12

1. 논의의 주안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일한 정책, 제도, 사업이라 할 수 없는 **복합성이 매우 높은 정책 지향, 다차원의 입체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발간)에서는 추진체계, 사업운영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본 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를 모두 다루지 않고, 통합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지향성과 요건**을 고려할 때
 - 왜 **지역에 주목**한 논의가 필요한지
 - 지역의 어떠한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지
 - 특히 지역 전달체계에서 **중점을 둘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향성과 요건

- 커뮤니티 케어는 ‘거주하던 집-동네를 떠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목적), 지역 이웃-자원으로 지원(수단)’ 한다는 이중적 의미 담지
 -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혹은 서비스제공 장소로 찾아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human service**로서,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대체로 시·군·구 범위)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 수요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며, 서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모니터링, 사례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 **지역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커뮤니티 케어는 선진적 서비스의 필요불가결한 방향성
 - 특히 건강한(healthy) 일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health care)**와 다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Social Care**의 성격으로서, **보건의료-주거-복지 등의 부문간의 이해와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관건

□ “케어”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편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서비스를 조합하고 지속가능한 제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 주도성이 필요불가결**

○ 지방자치법(제9조 사무 범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주민의 복지는 지자체의 핵심사무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확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2항)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지역 복지는 중앙정부의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지자체별 복지 기반 마련**과 **복지 지향성의 공유**가 필요
 - 지역사회 주민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여 공동체 내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 공동체의 삶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의 책무**가 될 것임.
 - **결핍이 없는 동네, 주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동네, 주민들이 서로 보살피는 협력적 동네, 지역의 교육과 문화가 복지로 이어지는 동네**를 지향
- 서로 보살피는 동네
 - 현재 한국의 도시와 농촌 등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욕구를 드러내는 영역이 돌봄서비스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적 책임과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조건은 지역사회의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당면하는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실행 가능

- 개별 지역사회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 다문화,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과 서비스 영역으로 분화되고 확장
 - 사회적 돌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아동보육시설, 장애인 재활서비스기관 등 공공 및 영리 서비스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
-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관련 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최대화/최적화 하고(적정 인력 확보, 일할 여건 마련, 연계기반 마련), 신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의 복지를 실현하고, 돌봄과 보살핌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필요
 - 공동육아조합, 자선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협동경제 조직들은 경제적 자본이 없이도 충분히 돌봄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지역 현실과 전달체계 변화 방향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지역 현실

- 현재 한국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성숙 과정(노인, 아동 돌봄 서비스 등) 혹은 초기 정착 단계(장애인 서비스, 보호 서비스 등)에 있기에,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서비스 자원의 부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실정
- 현재는 가능하고 강력한 선택지로서 **시설입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주간-야간의 사회적 활동과 돌봄 기능을 담당할 **서비스의 대폭 확충** 필요
 - **(지역 격차)** 지역 여건에 따라 이미 갖춰진 서비스 여건을 적극 활용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이용가능한 서비스, 인력이 매우 취약한 경우가 다수
-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는 커뮤니티 케어의 세부 과업 중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서비스 이용 이후 **종결과 의뢰-연계의 관리**’가 매우 취약한 현실

- **(부문간 연계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병원 등 많은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각 부문에 대한 **상호 이해, 정보 공유, 협력할 시스템**이 매우 취약
 - 특히, **병원 퇴원 환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 시설, 사업관리 영역에서 종결될 때, 일상생활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일, **자립생활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건이지만 매우 취약한 실정
 - 위기도가 높아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사례관리**는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
 - 지자체, 공공서비스행정기관(공단 등), 서비스제공기관 모두가 사례관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 필요
 - ‘사례’ ‘관리’는 각 사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한 공적책임성을 담보**하는 지역 내 **통합적 체계** 마련이 관건

- 시설에 보호했던(격리했던?!) 주민(대상자, 장애, 정신건강, 고령, 치매.....)을 **이웃으로 수용하여 어떻게 배려하고 무엇을 도울 것인지를 지역사회가 준비할 때 커뮤니티 케어의 선택 가능**
 - **(돌봄 인식)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소셜믹스 (social mix)의 물리적 전략이 사회적 관계와 인식 차원에서도 확산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신뢰 구축**
 - 시설거주 생활 보다 **더 충족된 일상을 누리며,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가가 관건**
 - 의식주거, 여가, 돌봄, 건강, 의료지원, 정서적지지 체계
 - **돌봄제공자에 대한 기대(가족에 대한 기대 충족), 가족의 회복과 지지**

〈지역 전달체계와 행정 기능의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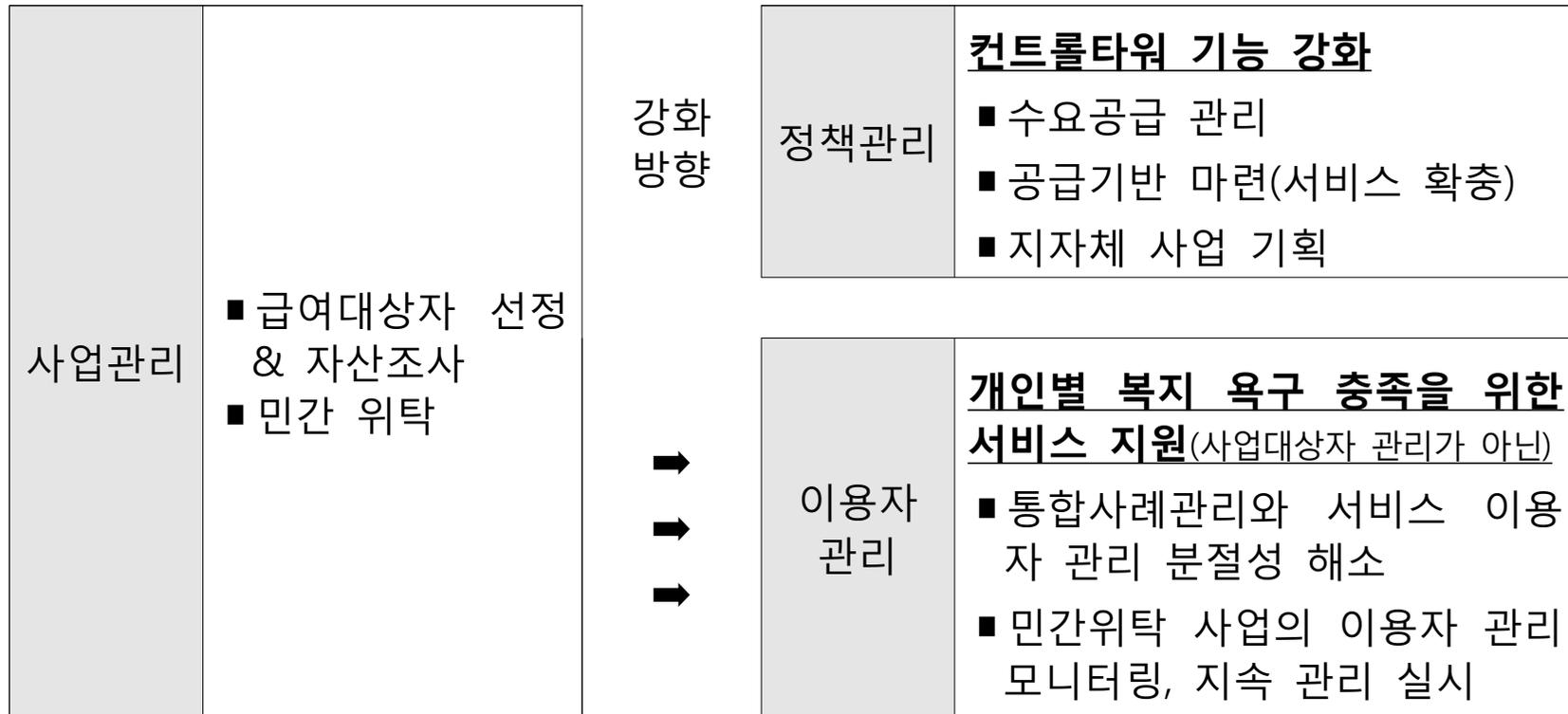
	현재	변화 방향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공적급여제도 중심 대상자 지원 · 영역-기관별 분절적 운영 · 시설보호 중심 조치 · 관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욕구 중심 급여·서비스 조합 ·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 대응 · 커뮤니티 케어 중심 지원 ·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수급 신청자 · 위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자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중심 · (시군구) 예산집행 중심의 사업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운영의 실효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서비스 수요-공급 관리 · 서비스 부문별 적정수준 확충을 위한 지역방안 마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기반 협력 체계 마련, 연계-의뢰 활성화 · 민간, 주민 주도의 지역 역량 강화

□ 지자체 복지행정의 주요 기능

정책 관리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원 관리		공급 기반 마련 - 서비스(시설) 확충 계획 및 실행		서비스 제공주체간 협력기반 형성-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	
이용자 관리	초기 상담	욕구 파악 (assessment)	서비스 지원 계획	서비스 자원 파악 및 동원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일선 창구(읍면동) 정보제공 및 상담 역량 확보			서비스 기관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사례회의)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등록·설치 신고 업무 ■ 시설 위탁 업무 ■ 기능보강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운영비, 인건비등) 지원-정산 ■ 예(결)산서 검토-공고 ■ 시설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관리 ■ 시설 거주자 상담 등 관리 ■ 시설 입소자 자격 조사 ■ 시설 입퇴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지자체 기능의 재구조화/ 업무 조정 방향

- **사업관리**에 치중했던 복지행정을 **정책관리, 이용자관리** 영역으로 강화하여, **서비스 절차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4. 준비 과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별 주요 과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선도사업 추진 단계의 구분		주관 또는 주체	주요 과업 및 고려사항
1단계	선도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준비	사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단(가칭) / 사군구 융합서비스팀	-지역사회 여건 진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욕구의 진단 -지역사회 가용 자원현황 파악 -선도사업 기본 추진주체 구성
2단계	선도사업 기본 추진체계의 구성 및 대상자 선정	사군구 지역케어회의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정립, 케어전담 실무팀 구성 -사군구 지역케어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융합서비스팀 업무 재분장 및 역할분담
3단계	기본 욕구사정과 통합 욕구사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동	읍면동 케어전담팀 사군구 융합서비스팀	-기본 돌봄욕구사정 -통합 돌봄욕구(ICP) 사정 -기본 연계, 서비스 신청 대행 또는 '심층 사례관리 대상' 구분
4단계	돌봄 대상자의 사례관리	사군구 지역케어회의	-통합케어플랜의 수립 -케어플랜에 따른 케어패키지의 구성
5단계	재가서비스 실시	사군구 융합서비스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욕구사정 결과에 따른 케어플랜이 마련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의 이행
6단계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사군구 융합서비스팀 사군구 지역케어회의	-성과지표의 선정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도사업 실시 이전 병원 또는 시설생활자의 일상					
의료	요양	식사	주거	일상생활	사회생활
24시간 의료인 접근 가능 (과잉/과소 진료 우려 상존)	의료인 또는 간병인을 통해 돌봄 욕구 충족	병원 또는 시설 일정에 따라 3끼 식사 배식	추가적인 거주비 지출 없이 주거해결 가능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무료한 시간보내기	지역사회 참여 기회 단절, 생애계획 무의미



선도사업 실시 이후 재가복귀의 경우 건강한 지역사회 정주(Healthy Living in Place) 기대					
의료	요양	식사	주거	일상생활	사회생활
재택 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방문치료 활성화 등	종합재가센터 및 지역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로 돌봄 욕구 충족	도시락 배달, 식사지원, 영양상담, 투약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그룹홈 연계,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가시간병서비스,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연계, 병원동행서비스 등	老老케어, 자조모임,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추진 주체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총괄 및 지원 -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및 관련 법제도 제·개정 추진 - 선도사업 중앙평가단 및 지역평가단 총괄 - 선도사업 지역별 실적자료 DB 구축 및 분석 지원
지자체-사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 대상별 통합 케어플랜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의뢰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목록 작성 및 이용실태 정기 모니터링 - 선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지급 - 심층 사례관리를 위한 케어관리자 채용, 배치 및 복무관리
지자체-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케어인대장구의 설치 및 운영 - 돌봄 대상자 및 돌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신청·접수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전달, 안내 및 신청 대리 - 사군구 사례 연계 - 지역사회 돌봄자원 발굴 및 연계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요구사항을 위한 전문 요구사항 도구의 자문 - 인정조사인력의 사군구 통합서비스스킬 파견 또는 인력지원 - 통합케어플랜의 수립 및 서비스 자문 - 서비스 연계 및 제공기관 협력지원
예시) 통합재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케어플랜의 수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지원 - 통합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 전달 - 서비스 만족도 확인 등
예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 선도사업 신규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비 지급 청구 - 사군구가 구성·운영하는 지역케어회의 참여 - 선도사업 참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와 평가 협조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 과업의 점검 사항

주요 과업	점검 포인트
<p>(기획-총괄관리) 여건 진단, 가용 자원현황 파악, 통합돌봄 욕구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보건·복지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 전반에 통합돌봄사업이 반영되어 있는가 ■ 지자체 관련부서가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p>(행정기반) 케어안내 창구 설치, 융합서비스팀 업무 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사업이 일부 부서(케어창구, 융합서비스팀)만의 일인가 ■ 읍면동창구와 시군구팀에 수요 대비 적절한 인력 수가 배치되었는가 ■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가 ■ 창구 및 팀의 제공자가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전반의 수퍼비전이 가능한가 ■ 통합돌봄 관련 상담 시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며, 필요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에 즉시 연락, 협력이 가능한가

<p>(협력기반) 지역케어회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가 각 기관의 공식 업무로서,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인정받고 있는가 ■ 통합돌봄의 공동 주체로서 유관 공공기관, 민간 서비스기관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가
<p>(서비스절차) 돌봄욕구사정, 서비스 연계, 케어플랜 및 패키지 구성, 심층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 개인 역량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 유관기관(병원·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로 연계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한 보건소, 병의원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방향 공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프로세스 마련 중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메뉴

육구기반 서비스 범주	세부 서비스 내용
<p>보건의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 만성질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검사, 진단, 치료, 처방, 진단에 따른 상급병원 혹은 협력병원 연계 -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위생, 투약지도, 예방접종 - 운동처방,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 영양상태 진단 및 영양관리, 식단관리 - 심리치료,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만성질환 관리 교육 - 의료급여 수급권 등록 지원 -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 장애진단 지원 - 틀니맞춤 지원, 임플란트 맞춤 지원 - 보청기 맞춤 지원, 안경 맞춤 지원 - 복지용구, 보장구 지원 - 건강관리 정보제공: 응급처치, 낙상예방 치매예방 - 알코올, 약물 등 중독 관리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중심)	병원방문	외래/입원 시 교통비 지원, 교통수단 지원 등
		재가의료	재가의료/재가간호/재가재활 등
	건강관리·증진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진단 및 치료 등
		복약지도	의약품·의약외품지원, 약물관리 등
	기타지원	보장구지원	휠체어, 보청기 등
		긴급대응	야간상담(24시간 대응) 및 응급서비스 등
		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의료 부문의 준비

유관병원 지역연계실	참여병원 담당자 (의료사회복지사 포함)	퇴원 및 정주 지원	· 대상자 의료정보의 공유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지원
------------	--------------------------	------------	-----------------------------------

자료: 박세경 외(201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지하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여 대상자가 지닌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영역과 과업에 한정된 업무가 아닌** 영역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 추구 필요
 - 해당 서비스 이후(**퇴원, 서비스/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회복, 정착, 정상화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필요 서비스 영역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자체-보건소-병의원 등이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 “(요양)병원 퇴원자 연계 중심 모델”이 통합돌봄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

- 지자체

- 보건소, 시군구 관내 병의원에,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로 정한 대상자 요건을 공유(예시, 노인, 장애인, 성인 정신건강 치료자 등의 **자립적 생활 여건 진단을 위한 점검 리스트** 등을 제시)
- 보건소, 병원 등에서 후속 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 서비스종료자 등에 대한 **대상자를 지자체로 알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담당자), 통보 방법(정보시스템 등 방안 마련) 공유
-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회적 지원 필요 서비스 내용이 있을 경우, 지자체(융합팀 등)에서 **일원화된 통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과업 부여

- 보건소 및 병원

- 자체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발굴,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담당자에게 과업 공유
- 지자체(융합서비스팀 등)와 협의한 통합돌봄 대상자 퇴원 이후의 **자립적 생활여건 진단, (지자체로의) 연계 및 의뢰 등에 대한 과업** 부여(담당부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대상 발굴과 관리에 집중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서비스 기반 마련,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입체적으로 병행되어야 가능**
 - **시설 보호보다 나은 일상 여건**(의식주거, 의료, 영양, 여가, 정서 지원 등)의 준비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TF), 특정 부서/인력의 노력만으로 곤란
 - 지역사회 전반의 커뮤니티케어 **인식 공유/ 인정/ 배려: 포용, 이웃-가족 설득**
- **다차원의 사업 영역간 기존 자원을 파악하여 공유할 때 시너지 창출 가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욕구, 자원 조사결과 활용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복지, 보건(의료), 주거 부문 관계자가 **공유할 자원 DB**의 확보
 - 유관기관 협력의 공식화 준비: 모든 관련기관이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기관 운영 규정으로 반영

-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정보 공유(공유 수준 협의)
- 서비스 정보 제공
- 주요 서식 통일 사용 노력

□ 민관 협력, 지역주민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실무분과(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주거,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분과 운영 중)에서 통합돌봄 이슈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돌봄 사각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법정급여/공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돌봄 방안을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담당자를 확보하고 일할 여건을 마련할 필요

□ 일할 여건과 사람에 주목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은 이를 위한 모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제들을 고려할 필요
 - 개인의 욕구 파악과 집합적 문제에 대한 인식/합의
 - 적정 인력 확보, 업무 부여, 조직별 기능 및 협력 기반 마련
-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 개인 역량을 높일 기회가 제공되고,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회복지부문 인력들이 **소진(burn-out)** 상태에 있지 않나
 -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가
 - 이러한 상황을 유관 부서(직원들)가 모두 인지, 공유하고 있는가
- 사회복지부문 인력들이 **협력에 관심**을 갖는가

- 부서간/ 관련 공공기관-민관기관간 서로의 업무,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는가
- 협력(의뢰, 연계 등)할 때, 비공식적인 친분, 개인 역량에 의지하고 있는가
- 서로 **배려하며 일하는** 문화인가
 - 상-하급자, 동료간 **수퍼비전**(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상당 기간(원하는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인가

- 감사합니다 -